

“다시금 특허권 확보의 중요성 깨달아”

2008 포토키나에 다녀와서 ...



글/전영수(주디카팩 대표)

(주디카팩(DICAPAC Co.,Ltd./www.dicapac.com)은 각종 디지털기기의 방수케이스 전문 업체로서 창사 이후 특허기술을 바탕으로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휴대폰뿐만 아니라 DSLR, MP3플레이어 등 다양한 디지털 전자제품의 방수하우징을 생산, 국내 및 해외 45개 국에 수출하고 있다.

디카팩은 매년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방수케이스 시장에서 글로벌 브랜드로 발전하기 위하여 각종 국제 전문 박람회에 참가하며, 신제품홍보 및 거래선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세계최대의 카메라 및 광학기기 전문 박람회인 독일 Photokina 2008에 참가하여 유럽을 비롯한 해외시장에 제품홍보 뿐만 아니라 거래선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독일 쾰른에서 2년에 한번씩 개최되는 포토키나(Photokina)는 오랜 역사와 전통과 함께 사진영상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전시회이다. 당사에서도 2006년 처음 참가 이후 올해로 두 번째 참가하게 되었다. 디카팩에서는 2006년 처음 전시 참가를 통해 독일 및 유럽 전역의 거래선을 확보했으며, 두 번째로 참가한 올해에는 기존 거래선 관리 및 신제품 홍보에 중점을 두었다.

포토키나는 워낙 인지도가 있는 전시회이고, 특히 올

해는 디지털카메라 관련으로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 대부분의 부스에 사람들의 발길이 더욱 많이 붐비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미국경기 침체의 여파인지 북미지역 바이어들의 방문이 저조했으며, 유럽지역의 바이어들도 제품주문에 신중해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각종 볼거리 및 화제와 함께 관람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룬 ‘2008 포토키나’

포토키나에 삼성과 같은 대기업은 자체 홍보부스로 참가한 반면, 한국과 중국의 중소기업들은 국가관 형식으로 참가했다. 해를 거듭할수록 전시회에 참가하는 중국 업체의 수가 점차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세계시장을 향한 중국의 숨겨진 행보를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중국과 관련하여 이번 전시회 기간 중에 에피소드가 있었다. 중국의 한 업체가 디카팩을 카피한 제품을 가지고 포토키나에 참가해서 당사와 동일한 홀에서 전시행사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그 중국업체의 제품은 모양뿐만 아니라 컬러 등 대부분 모양이 디카팩 제품과 동일했으며 핵심기술 부분을 그대로 카피하여 당사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홍보하고 있었다.



▶ 포토키나에서의 디카팩 부스 전경



▶ 디카팩 제품을 카피하여 포토키나에 참가한 중국업체의 부스

이 때문에 당사는 기존 거래처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게 되었으며, 신규 거래선 발굴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중국의 유사업체와는 이전 중국 박람회에서도 몇 번 마주친 일이 있었지만 포토키나에까지 등장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었다. 따라서 당사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에 나섰다. 디카팩 핵심기술은 이미 해외에 특허등록이 된 상태였고, 독일 특허청에도 등록된 제품이기 때문에 당사는 정식으로 클레임을 제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우선, 본사에 연락을 취하여 전시회 주최측에 특허권 침해 공문을 보냈으며, 박람회장에 위치하고 있는 'No Copy센터'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전시회 담당자와 만나 협의를 한 후, 전시회 둘째 날 주최측 담당자, 세관공무원, 방송국기자, 신문기자 등과 함께 중국의 유사제품 부스를 방문해서 포스터 및 전시품을 압수했으며 벌금을 부과기에 이르렀다.

이번 단속은 중국 단체관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다른 중국 업체들에게도 제품 카피문제의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시켜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국제경쟁력 갖추기 위해 앞선 개발 및 특허권 보유가 선행돼야”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느낀 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특허권 확보의 중요성이다. 디카팩도 독일에서의 특허권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포토키나 주최측의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을 기대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따라서 국내 관련업체들도 지적재산권 보유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길 당부 드리고 싶다. 중국업체들과 비교하여 가격경쟁력의 열세를 품질 및 기술로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피땀 흘려 이룩한 우리의 기술력을 '도둑질'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특허권이라는 안전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국내에서도 해마다 4월에 서울국제사진영상기자재전(P&I)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전시주최측에서 'No copy 부스'를 운영하여 지적재산권 보호활동에 더 큰 힘을 쏟아주길 기대한다.



▶ 디카팩의 제품을 그대로 카피한 중국제품



▶ 주최측 담당자, 세관공무원, 방송기자, 신문기자 등과 함께 중국 유사제품 부스를 방문한 전영수 사장(사진 오른쪽)